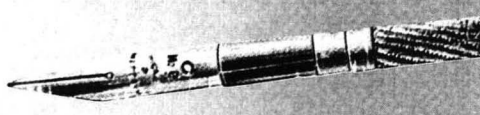
WORLD PUBLISHING NEWS



● 영국도서상 수상도서 판매율 증가

영국도서상 수상식 이후 수상도서들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체인 서점 W H Smith의 매출액을 보면 수상식 전과 비교, 증가세를 보인 도서들은 다음과 같다. 《*Lovely Bones*》는 71퍼센트, 《*Curious Incident*》는 45퍼센트, 《*No 1 Ladies Detective Agency*》는 46퍼센트, 《*Brick Lane*》는 116퍼센트, 《*Martin Johnson*》는 45퍼센트, 《*Toast*》는 30퍼센트의 증가율을 각기 보였다. W H Smith의 도서부장 게리 크리블 씨는 "영국도서상 수상식은 수상도서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도서상은 저작과 출판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주변 도서에 대해 토론하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많은 영국인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며 영국도서상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했다.

● 펭귄출판사, 젊은 남성들을 위한 독서 캠페인 열어

펭귄출판사가 젊은 남성들을 주대상으로 한 독서장려 캠페인 'Good Booking campaign'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캠페인의 지정도서는 펭귄문고에서 선별된 'Good Booking'. 해당 도서를 읽는 남성이 발견되면 1,000파운드를 상금으로 받게 되며, 그 책을 읽고 있는 남성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는' 여성 역시 1,000파운드를 상금으로 받게 된다. 'Good Booking' 팀은 본 캠페인을 현재 클럽, 캠퍼스, 열차역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

도서 소매상들은 본 캠페인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고 펭귄출판사는 워터스톤즈, 보더즈 US, W H Smith와 같은 체인 서점에서 사용할 행사용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펭귄출판사 홍보전략의 중심은 스타벅스와 같은 매장에 북마크 기계를 설치하는 것. 다른 홍보물로는 클럽 전단지, 광고, 이메일 전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펭귄출판사의 롭 윌리암즈 씨는 "지난해 '더 읽으세요' 캠페인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잡지, 음반, DVD는 즐겨 구입하지만 도서구입에는 인색한 남성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캠페인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본 캠페인에서 활동하게 될 성전문가 트레이시 콕스는 영국 채널 〈리차드 & 주디〉 방송에 출연, 'Good Booking'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한편, '독서하는 남성들이 배려하는 연인'이 되는 이유를 들려줄 계획이다. 'Good Booking' 웹사이트는 50권의 도서를 나체, 정치, 비정상적 섹스, 탐욕, 약물, 자동차와 같은 아이콘을 사용, 등급을 나누어 소개한다. 'Good Booking' 웹사이트 주소는 www.getgoodbooking.co.uk이다.

● 독서습관의 중요성 알리는 크리스타아네 데트마 잔더의 책

독일 코넬젠 출판사의 《독서를 통해 세계를 발견하다》는 어렸을 때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 성장해서도 다른 책을 끊임없이 읽게 된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저자인 크리스티아네 데트마 잔더는 이 증명을 토대로 자녀들이 즐겁게 독서하는 방법, 자녀들을 위한 첫 도서 구입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들려준다. 책은 많은 아동도서를 연령별로 분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한편 독서장려와 관련한 단체들의 연락처와 선정도서목록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 e-book에 친근감 표시한 독일 독자들

독일의 대표적 시사주간잡지 〈슈피겔〉 온라인판이 e-book이 보편화될 것인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자책은 독서 미래의 시작인가 혹은 이전과 마

찬가지로 종이책인가?' 가 설문의 주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4퍼센트가 e-book과 e-paper가 보편화되기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향후 수십 년은 계속해서 종이가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응답자의 44.2퍼센트는 e-book과 e-paper는 환경문제 측면과 실용성을 들어 보편화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시작은 늦겠지만 궁극적으로 e-book과 e-paper가 종이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e-book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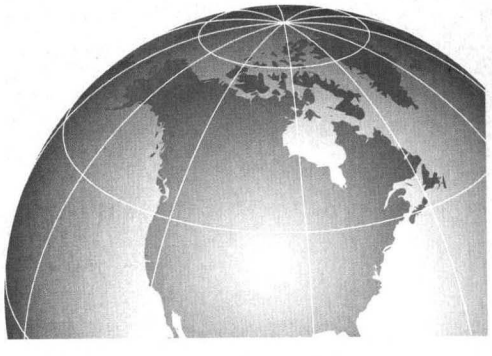
● 미국 Cheng & Tsui 출판사, 성공비결로 '틈새공략' 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동남아시아어 학습교재를 출판 · 유통하는 미국 Cheng & Tsui 출판사가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는다. 본 출판사의 모토는 '아시아를 세계에 소개하자' 이다. Cheng & Tsui의 대표 책들은 Tao-Chung Yao의 공저《통합 중국어》, 히로미 피터슨과 나오미 오미조의《일본어 모험》과 같은 교육시리즈. 경영 초기부터 전문서만을 고집한 Cheng & Tsui는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 큰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Cheng & Tsui는 지난 몇 년 동안 15~20퍼센트 성장한 이색 출판사. 출판사의 창업자인 청씨는 "틈새를 노린 것이 주효했다"며 성장비결을 밝혔다. Cheng & Tsui는 도서, 소프트웨어, DVD를 포함한 800여 가지의 품목을 다루고 있으며 호주, 아시아, 유럽의 8개 출판사 도서를 유통시키고 있다.

● 몬트리올, 2005년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로 선정

캐나다의 수도 몬트리올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의 토리노를 제치고 2005년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로 선정되었다. 선정위원들은 캐나다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모든 도서산업분야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심사위원단은 국제출판협회(IPA), 국제서적상연맹(IBF),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그리고 유네스코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몬트리올이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2006년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선정' 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2004년 9월 10일까지.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세계 책의 수도' 를 선정했으며, 2004년 '세계 책의 수도' 로는 벨기에의 안트워프가 선정되었다.

● 벨기에, 국제문학센터 Passa Porta 세워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국제문학센터 'Passa Porta' 가 장대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총 면적 700평방미터 규모의 Passa Porta에는 문학 살롱, 전시 구역, 서점, 작가들을 위한 아파트가 함께 들어설 계획. 건축공사는 올 3월 초에 A. Dansaert가街에서 착공되었으며, 오는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